

비핵화 북미대화 물꼬 트고 군사적 긴장 완화 기대

3대 의제 회담 전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테이블에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 3대 의제가 놓이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북미정상회담의 '정검다리'가 되는 것은 물론 종전선언 등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상황이 엄중하다는 관측이다.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 3대 의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을 꼽을 수 있다. 사안 자체가 엄중한 것은 물론, 북한과 미국이라는 양 당사자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이다 보니 청와대로서도 한층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의식한 듯 "2000년과 2007년에는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 반면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 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중재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이 성과를 거둘 경우,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남)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개선=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의제에 대해 임 실장은 판문점선언을 바탕

국회·지자체 교류 방안 논의

경제협력 결과 나올지 주목

서해 평화수역 합의 여부 관심

으로 논의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방안은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방안 등도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정상 간 정기적 만남을 약속한 만큼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약속도 이곳에서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3·1절 등 민족적 의의가 있는 기념일에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거나, 국회, 정당, 지자체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임 실장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경제협력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특별수행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인사는 물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기반으로 남북 간 경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로도 풀이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금강산이나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북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군사적 긴장·전쟁위협 종식=가장 기대감이 높은 의제다.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



육로를 통해 방북한 남북정상회담 남측 선발대가 16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해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전종수 북측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서호청 외대 통일정책 비서관 겸 남측 선발대 단장. /연합뉴스

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북군사 당국이 조율하고 있는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이 바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무려 17시간의 마라톤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DMZ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GP(감시초소) 우선철수, DMZ 유해 공동발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을 만들기 위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NLL 일대에 합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합정 출입·사격훈련 금지 구역 설정, 남북공동어로 조성 등의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제정세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인 평화 얻고자 합니다”

문대통령 출국 인사·다짐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정상 및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연고자 하는 것은 평화다.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리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아말포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자, 경제적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첫째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미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저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관계에 대해 “지난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개설했다.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27 판문점선언을 비롯해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상호 신뢰의 구축이다. 역사사지하의 마음과 진심을 다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불신을 털어내야 한다”며 “저는 김 위원장과 홍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평양시민이용 식당서 만찬... ‘여명거리’ 함께 산책할 수도

미리보는 평양 2박 3일

김정은 위원장 공항 영접할 듯

도보다리 감동 재연 여부 주목

18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부 일정이 공개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2박 3일 일정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수행원들과 오전 8시 40분 성남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오전 10시 평양국제공항 순안공항에 도착한다. 똑같이 서해 직항로로 이동

했던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환영식 후 문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오찬을 마치고 나면 방북 기간 첫 정상회담이 열린다. 회담 장소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 회의실이 유력하다. 첫날 회담을 마친 후 오후에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하고 이어 환영 만찬이 계획돼 있다. 첫째날 일정이 마무리되는 데로 문 대통령은 숙소로 향한다. 공식수행원이 백화원초대소에 머무르기로 결정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문 대

통령의 숙소도 이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날 오전에는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이때 회담 결과에 따라 오후에 합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회담을 이어가야 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상회담이 오전에 끝나 회담 합의 내용까지 원만히 발표된다면 문 대통령은 육류관에서 오찬을 마치고 공식·특별수행원과 평양의 주요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북한이 평양의 랜드마크로 조성한 미래과학자 거리 혹은 여명거리 등을 산책하거나 별도의 산업·관광시설을 둘러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만찬이 어디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가시는데 북측에 부탁을 해왔다”면서 “평양시민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가급적 만찬을 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평양 시내를 관람하거나 평양시민이 자주 찾는 식당에 남북 정상이 마주 앉은 모습이 4·27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담’과 같은 또 하나의 명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둘째날 환송 만찬이 예정된 만큼 마지막 날 별도의 환송 오찬은 없을 것이라고 임 실장은 전했다. 북에서의 일정이 종료되는 시각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문 대통령이 늦지 않게 서울로 돌아온다면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하나팩

여행은 편안하게, 무안출발 해외여행

중국	대만/동남아	일본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color: red;">상해</h3> <p>299,000원~</p> <p>상해/항주/주자각 4일 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 토요일 4박 5일</p> <p>#상해역#중양리 베니스 #주자각 벵베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color: red;">상해/장가계</h3> <p>1,290,000원~</p> <p>상해/장가계/원가계 4일 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4박 4일 / 토요일 4박 5일</p> <p>#천하제일명산 #일식미조여행</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color: red;">대만</h3> <p>614,200원~</p> <p>대만/지우펀/야류 3일 4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월, 목, 금, 일요일 3박 4일 / 수요일 2박 3일</p> <p>#역거리, 불거리가득</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color: red;">방콕</h3> <p>459,000원~</p> <p>방콕/파타야 5일 6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 목요일 3박 5일 / 토, 일요일 4박 6일</p> <p>#코끼리체험 #발사지 #다이나미 여행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color: red;">다낭</h3> <p>849,000원~</p> <p>다낭/호이안/후에 4일 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 화요일 4박 5일</p> <p>#4성급호텔 #두분강투어 #후에전통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color: red;">기타큐슈</h3> <p>490,000원~</p> <p>기타큐슈/유후인/벵부 4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p> <p>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매일출발 2박 4일</p> <p>#지옥온천 #개별시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3 style="color: red;">오사카</h3> <p>790,000원~</p> <p>오사카/교토/나라 4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없음</p> <p>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월, 목, 일요일 3박 4일</p> <p>#사승온천 #알찬관광일정 #다양한 특식</p> </div>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장점 062)228-1199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앱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